

청년창업·육아지원센터 공사 중단 영광군 '겉핥기' 지질조사가 원인

조사 당시 천공 샘플 너무 적어 암반 발견 무시하고 공사 강행 예산 낭비에 완공 지연 불가피

영광군이 추진하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중 암반층이 발견된 것과 관련, 군이 공사 시작 전 실시한 지하지질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으며 암반층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3월 1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건립에 착공했다. 센터는 골바골영광시장 주차장 일원에 건립되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32㎡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조성된다.

하지만 첫 삽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 터파

기 공사 도중 지하에 암반층이 발견되면서 공사는 중단됐고, 최근 군이 지난해 진행한 지하지질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은 센터 설계 단계 전인 지난 2021년 2월 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하지질조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해 실시했다. 해당 부지 중 두 곳을 천공했고 확인 결과 지하 5.5-5.9m 구간에 풍화암층이, 5.3-7.3m 구간에 연암층 나타났다.

문제는 군이 센터 착공 부지에 건물기 들어설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지하지질조사를 실시,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조사 결과 두 개의 암반층을 발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애초 계획했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 낭비는 피할 수 없는 데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사 시작 전 실시한 지하지질조사 당시 천공 샘플도 너무 적었다는 게 지질조사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질조사 전문 업체 관계자 A씨는 "해당부지가 사급공사 현장이었다면 추가 천공이 당연히 실시됐을 것이다"며 "조사 이후 건물기 들어설 위치가 확정됐고 암반층이 건물기 들어설 위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질조사 당시 암반층이 발견됐지만, 센터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작했다"며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암반 제거 시 인근 주택가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소음이 적은 공법 도입과 지하 주차장을 설계에서 배제하고 지상 건축만으로 시공을 마무리하는 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야간조명 더 고즈넉한 화엄사 22일 밤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 자락의 천년고찰 화엄사가 야간에 산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다. 한여름밤 지리산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선선한 바람과 국보 35호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비롯한 국보·보물 문화재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엄사는 다음달 31일까지 매일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구례군 제공>

보성군 민선8기 첫 추경 6860억원 확정...민생경제 회복 역점

본예산 대비 964억원 증액 편성

보성군은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964억원 증액 편성해 686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군정 주요 핵심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인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에 31억원

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14억원을 투입한다.

또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도 6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지역민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6억원을,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정책인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8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인정사업) 20억원, 벌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0억원,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최근 물가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을 준비했다"며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켜 보다 발전된 보성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숨겨진 담양 마을 이야기 찾아내 책에 담았다

기록단 교육 받은 주민 12명 감성매거진 '소쿠리' 펴내

담양군 마을기록단이 담양의 3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주민주도 마을 감성매거진 '소쿠리' <사진>을 펴내 눈길을 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록단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 12명으로 이루어진 마을기록단은 주민들이 취재기획안 작성, 취재 및 대상 섭외, 인터뷰, 기사 편집, 사진촬영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발간해 책을 완성했다.

책에는 담양의 명소, 설화, 풍경, 카페 등 담양을 이야기하는 각양색색의 공간과 주제에 대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기록했다.

마을기록단 유혜진 씨는 "지역에서 옛 방식 그



대로 전통방식을 이용한 쌀엿을 만드는 '모녀삼대살 엿공방'을 취재하면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것이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한결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모녀를 소개했다.

윤순심 씨는 할머니의 오래된 물건을 통해 긴 세월을 견뎌온 물건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슬픔과 함께 긴 세월의 인생이야기를 담았다.

마을기록단은 최근 출판회와 수료식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마을기록을 위해 담양의 312개 마을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화순군 개미산 일대 문화관광벨트 조성

둘레길·건강데크 계단 등 조성

화순 개미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부터 건강과 재미를 한번에 쟁길 수 있는 둘레길, 이색 건강 데크 계단 등이 조성돼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이 화순읍 개미산 일대(강정리 257-1 일원)에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

군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하나로 개미산 일대에 문화·관광·여가 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미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자연환경과 주변 자원을 살린 공간 ▲화순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공간 ▲지역 일자리 창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개미산 전망대는 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로 설치한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화순의 역사·문화·관광 등 전시 공간, 3층은 화순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을 조성해 화순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차장에서 전

망대까지는 100개의 계단을 설치해 건강과 재미를 추구하도록 이색 건강 데크 계단(480m)을 만들고, 전망대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을 위한 상징 조형물도 설치한다.

아울러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경관 조명, 보행 약자를 위한 개미산 둘레길, 차량을 이용해 전망대를 찾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600㎡)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인접하고 있는 화순천에 조성할 화순천 꽃길생태공원의 음악 분수대, 인도교, 들국화정원, 생태학습장, 나드리목 캠핑장 등 생태문화 공간과 안양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문화 복지 공간과 연계해 화순의 복합 문화관광벨트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처, 볼거리를 제공하는 매력 있는 명소가 되도록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장성군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장성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 등록돼 있는 35~5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1인당 20만 원(생애 1회) 상당의 경력이음바우처카드가 제공된다. 도서 구입이나 취업강좌 수강, 교통비 등 취업준비 과정에

서 두루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당초 8월 1일까지였지만 한 달 연장돼 오는 8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은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발급된 카드는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경제교통과 일자리 공동체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